

공동체 소식



부활 제5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
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부활시기’ 안내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어: ‘다’ 양식

■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미사 : 5/5(토) 오전10:00, 목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 첫영성체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축하식 : 5/6(주일) 교중미사 중.
- 대상 : 김로즈 로즈(김지혜 수산나의 녀), 다니엘(박동희 안나의 자) 김정빈 바오로, 김정훈 로베르토(장보혜 프란체스카의 자)

■ 본당 봄 야외행사
- 일시: 5/13(주일) 11:00미사, 미사 후 행사
- 장소: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본당 행사를 위하여 동양 슈퍼마켓에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의 방법
- 내용: 본당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동양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경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두 장 받아서, 한 장은 동양 슈퍼마켓에 한 장 남기고, 다른 한 장은 받아서 행사 당일까지 채무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과 건
35	210	178	138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차 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최은미 아베스	첫영성체 학생들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차 주	최은미, 김진미, 조경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22	42 명	578 달러	600 달러
김대연, 정수환 (총 2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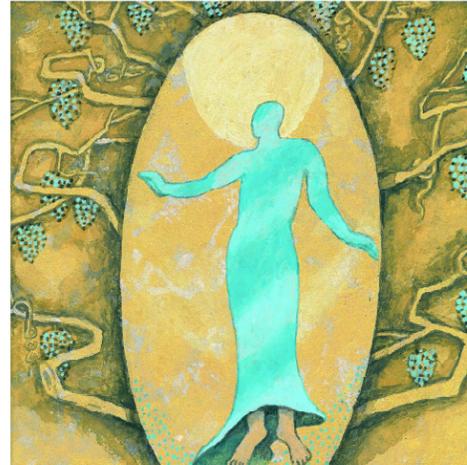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만이가 되어, 성덕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청합시다.

그림 묵상



농부이신 하느님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관계처럼, 포도나무인 주님과 가지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 버리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향기나는 포도송이가 되어 하느님 나라의 향아리에 담기는 포도주가 되길 소망하는 저희를, 주님! 어여뻐 여기소서.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9,26-31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생명의 말씀

성체성사 안에서의 변화와 열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성당은 34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당으로 승격된 지는 1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제의 부족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본당의 공소로 속해 있으면서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신앙생활의 중심인 성체 성사보다는, 사제가 없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성상'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제가 함께 살며 성사를 통한 신앙생활로 초대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 해왔던 성상에 대한 전통만이 뿌리 깊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미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성상을 모시고 거리를 지나가는 행렬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당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본당이다 보니 성상들을 모시는 단체가 11개나 되었고, 그 단체들이 청하는 각각의 개별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미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힘까지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다 문득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해답은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아무리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단체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가 빠진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체 성사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 지향을 단순히 신청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사에 직접 참여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머물 때,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본당에 부임한 지 1년여 지난 지금, 작지만 내적인 변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개별 미사는 거의 사라졌고, 본당의 미사를 중심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행렬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외적인 행사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본당 미사에 먼저 중심을 두고 그 이후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1개의 모든 단체가

다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사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다른 단체에게도 변화의 모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그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체성사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매일매일 본당에서 거행되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미사 안에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수많은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나무가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를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새 잎이 달려있죠?
그럼 살아 있는 거랍니다.
나뭇가지는
나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 15,5)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하느님의 시간, 나의 시간

아픈 둘째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저는 상담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든 건지 근본적인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호 씨는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남들이 알아챌까 봐 그동안 갑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 갑옷을 벗고 나서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버린 거고요. 그걸 벗어버려야 하는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진 후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감추는데 더 익숙해진 거죠.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한 척,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계속 상호 씨를 괴롭혀 온 거예요.’

저는 어쩌면 제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탓에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무엇을 하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게 끝날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저였으니까요.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까를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지금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속에 올라온 결론은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그 삶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오만한 저의 태도가 병을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남들

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은 쓸데없이 지켜야 하는 자존심으로 변질되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과 시간도 제 것이라 착각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은 그저 아깝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프게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더 이상 보여 지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마주치는 삶의 이면에 있는 영원함을 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결국 주님이 처음 저를 빚어 내신 본래의 저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며 살아오느라 지쳤을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나버린 과거를 붙잡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도 귀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안에 저를 온전히 맡기려 합니다. 제 시간이 아닌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려 합니다. 제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아멘.

- 이상호 비오 | KBS 아나운서

교리상식

교리상식

부모가 조당이면 자녀는 세례나 첫영성체를 받을 수 없나요?

조당은 교회법에서는 흔히 혼인장애를 의미하며, 이런 부부의 미성년자 자녀는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기에 원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장애가 아기에게 세례나 첫영성체를 하는데 금지 요소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법 제868조) 부모 중 적어도 한 편이나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부모가 꼭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